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승님께서 물이 도(道)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르기 때문이라네.

물은 너무나 유약하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기는 법이라네. 물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지.

- 타고난 자연의 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禮)에 따라 행동한다.
-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고 분별적인 지식을 쌓아 나간다.
- 나와 남의 상호 연계성을 자각하고 남의 해탈을 위해 헌신한다.
- 만물에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타고난 인의(仁義)의 덕을 함양한다.
-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소박하게 생활한다.

2.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지혜는 정의로운 국가와 정의로운 인간 모두에게 필수적인 덕이다. 지혜는 영혼에서 이성과 관련된 덕이고, 기개와 관련된 덕은 용기, 욕구와 관련된 덕은 절제이다.

을: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심을 유지한다. 실수를 하거나 해를 입어도 정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려야 할 대가로 여기며,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에는 항상 무관심하다.

- 갑: 진리의 근원인 참된 실재를 현실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 갑: 이상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절제의 덕이 필요하지 않다.
- 을: 부와 명예 같은 것은 원하지도 피하지도 말아야 한다.
- 을: 사회 참여를 멀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 갑, 을: 이성애 맞는 욕구 충족도 덕의 함양과 양립할 수 없다.

3.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새나 짐승과는 함께 모여 살 수 없으니 내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누구와 더불어 살겠는가? 인(仁)은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다스려야 사람들이 염치를 알게 된다.

을: 사람들도 새나 짐승과 함께 생활하고 만물과 함께 무리지어 나란하니 어찌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겠는가? 그들은 마치 무지(無知)한 듯 순진무구하여 덕과 떨어지지 않으며 아무런 욕심도 내지 않는다[無欲].

- 갑: 통치자는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
- 갑: 통치자는 재화의 고른 분배를 통해 사회적 화합을 꾀해야 한다.
- 을: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문명에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 을: 덕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 갑, 을: 이상적 삶을 구현하려면 누구나 덕에 따라 살아야 한다.

4. 갑은 고대 서양 사사가, 을은 근대 서양 사사가이다.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우리는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면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을: 우리는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는다. 한 행위가 가져다 주는 쾌락과 고통 각각의 총량은 계산될 수 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차감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개인 또는 사회에 일반적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 모든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가?
- 진정한 정신적 쾌락을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을 억제해야 하는가?
- 사회 전체 쾌락의 증대 여부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가?
- 사려 깊고 고상한 행위가 도덕적인 이유는 쾌락을 주기 때문인가?
- 행복은 마음의 불안과 육체적 고통이 사라질 때 얻어질 수 있는가?

5.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사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진리[法]에 의지하고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라.
-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곧 진리를 보며, 진리를 보는 자는 곧 연기를 본다.

(나)

		(A)		
	(B)			

[가로 열쇠]
(A): 인위적이거나 강제적 작위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
예) 노자의 '○○자연' 사상
(B): 외부 사물과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
예) 장자의 '□□일체' 사상

[세로 열쇠]
(A): …… 개념

- 변화하는 현상계 속에는 어떠한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될 만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불멸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 제기된 말이다.
-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 버리라는 말이다.
- 모든 존재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져 독자적 '나'가 없다는 말이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p>스승님, 사회가 혼란해진 원인은 무엇입니까?</p> <p>1</p>	<p>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네.</p> <p>2</p>
<p>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p> <p>3</p>	<p>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禮)를 회복하여 인(仁)을 실현해야 하네.</p> <p>4</p>

- 현실의 도덕적 질서를 부정하고 대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
-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서(恕)를 실천해야 한다.
-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기 위해 양생(養生)의 수련을 해야 한다.
- 성현이 제정한 예악에서 벗어나 개인적 욕구를 추구해야 한다.
- 내세의 길흉화복을 예측하기 위해 초월적 존재에 의존해야 한다.

2.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완성이다. 자신의 본성상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없거나 이미 자족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인간만이 서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국가를 이루길 원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지 물질적 필요의 충족만은 아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목적이라면 노예나 짐승의 국가도 존재할 수 있다.

- 국가는 구성원의 덕성 함양에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 국가 안에서만 개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된다고 본다.
- 국가와 구성원 간 합의로 정치적 의무가 소멸된다고 본다.
- 국가는 개인들의 선택으로 구성되는 명목에 불과하다고 본다.
-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훌륭한 삶과 개인의 좋은 삶은 무관하다고 본다.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하늘과 땅이 합하여 만물이 생겨나고 본성과 작위(僞)가 합해져 천하가 다스려진다. 하늘은 만물을 생성하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땅은 사람들을 살게 하지만 다스리지 못한다. 성인(聖人)은 성정(性情)을 바로잡아 만물을 분별하고 세상을 다스린다.

을: 하늘과 땅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도 자신을 뒤에 세우지만 앞서게 되고 자기를 버리지만 자기를 보존하게 된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無爲]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 갑은 하늘[天]을 인간에게 도덕적 성정을 부여하는 실체라고 본다.
- 갑은 효제(孝悌)를 인간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교육의 결과로 본다.
- 을은 사물에 대한 지식의 축적만으로 도(道)를 체득할 수 있다고 본다.
- 을은 인위적인 예(禮)의 실현을 위해 부쟁(不爭)의 덕이 필요하다고 본다.
- 갑, 을은 인간의 본성[性]은 서로 다르지만 수양을 통해 같아진다고 본다.

4. 사회사상 (가), (나)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가 다수의 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를 전복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이다. 공산주의는 생산물을 취득할 권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을 예측시키는 권력을 빼앗고자 한다.
- (나)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이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계획 경제의 틀 아래 산술적으로 균일한 분배를 실시해야 한다.
- 의회 중심의 정당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해야 한다.
- 공공 이익의 증진을 위해 일체의 사적인 소유를 배제해야 한다.
-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

5. (가)의 한국 사상가 갑, 동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p>갑: 사람이 잉태되면 하늘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인 영명한 본체를 부여한다. 동물은 억지로 인간이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사람은 자주의 권한[自主之權]도 부여받아, 선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하면 악을 행할 수 있다.</p> <p>을: 사람과 만물이 생겨나면 이치 또한 부여받는데, 각각 부여받은 이치를 본성[性]으로 삼는다. 기질의 맑고 탁한 차이로 인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생겨난다. 사람은 기질의 차이에 따라 선을 행하기도 하고 불선을 행하기도 한다.</p>
(나)	<p>〈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A: 덕을 좋아하는 성향[嗜好]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본성이다.
- A: 예(禮)의 덕은 사양하는 마음을 실천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 B: 인격을 수양하는 궁극 목적은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 C: 만물에 부여된 형이상의 본성에도 인의예지가 갖추어져 있다.
- C: 사단(四端)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지니는 선한 감정이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스승님,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2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아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해야 하네.
3	그럼, 영혼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4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여 진리 탐구에 정진해야 하네.

- ① 진리가 상대적임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행복이 지식과 무관함을 인식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 ③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중시하고 사회적 공감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인간이 만물의 척도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
- ⑤ 참된 삶이 덕 그 자체임을 깨닫고 항상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

2.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아름다운 국가’는 가장 완벽한 수호자들이 통치한다. 이들은 모든 지식 중 지혜라고 불리어 마땅한 선(善)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국가의 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을: 진리의 빛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서광을 먼저 비춘다. 따라서 산업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노동자와 빈민이 무지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뉴 하모니’를 건설해야 한다.

- ① 갑: 모든 계급의 철폐가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통치한다.
- ② 갑: 구성원 모두 주어진 역할에 따라 맡은 바 직분을 다한다.
- ③ 을: 사유 재산이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는다.
- ④ 을: 이기적인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자연권을 완전히 보장받는다.
- ⑤ 갑, 을: 모든 구성원이 생산수단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공유한다.

3. 다음 고대 서양 사상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최고선인 행복은 덕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며, 덕은 영혼의 요소에 따라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으로 나뉜다.
- 감정이나 행위에 있어서 덕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그러나 심술이나 파렴치, 절도나 살인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 ① 어떤 감정이나 행위들은 중용의 상태를 가질 수 없다.
- ② 덕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욕구가 이성에 의해 인도되어야 품성의 덕을 갖추 수 있다.
- ④ 중용의 덕을 함양해야 삶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 ⑤ 도덕판단의 기초인 실천적 지혜는 품성의 덕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4. (가)의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삶[生]도 바라고 의(義)도 바라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없으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한 그릇의 밥과 국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더라도, 모욕하면서 주면 길 가던 사람도 받지 않는다. 현자(賢者)는 이 인의의 본심을 잃지 않을 뿐이다.</p> <p>을: 예(禮)는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스승[師]은 예를 바르게 하는 자이다. 예가 없으면 어떻게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승이 없다면 어떻게 예가 옳은지 알겠는가? 성정을 바로잡아, 정감이 예를 편안히 여기고, 지혜가 스승과 같아진다면 성인(聖人)일 것이다.</p>
(나)	

- ① A: 군주는 인의의 도덕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② A: 본래 마음 밖에 있는 의를 실천하여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 ③ B: 성인과 일반 백성은 모두 동일한 본성[性]을 갖고 태어난다.
- ④ C: 하늘을 도덕의 근거로 삼아 사회 질서의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 ⑤ C: 식욕(食欲)과 같이 타고난 자연스러운 욕구를 다스려야 한다.

5. 근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나는 오직 내가 생각하는 존재, 즉 정신이나 이성으로서의 존재라는 말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는 이제 드디어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바로 생각하는 존재였다.

을: 나는 언제나 이른바 ‘나 자신’이라는 것의 심층에 들어가 보면 개별적 지각들, 즉 사랑과 미움, 고통과 쾌감을 경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여기서 이성은 나의 행동과 정념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

— < 보 기 > —

- ㄱ. 갑은 경험과 관찰로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 ㄴ. 을은 인과 법칙이 심리적 성향과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제1 원리를 방법적 회의의 출발점으로 본다.
- ㄹ. 을은 갑과 달리 사유하는 자아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승님, 사람들은 왜 서로 대립하고 다투며 사는 것입니까?

하나인 마음[一心]을 깨닫지 못하고 각기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이라네.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양한 입장들을 인정하면서도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는 화쟁(和靜) 정신을 실천해야 하네.

- 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
- ②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불변의 자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 ③ 사회적 도덕규범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 ④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 절대자와의 합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 ⑤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견해들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선의 이데아에 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 왜냐하면 선의 이데아는 최고의 이데아로서 모든 옳고 아름다운 것들의 원인이자 주인이기 때문이다.

을: 선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선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고의 선은 행복이며, 행복의 필수 요소는 중용의 덕이다.

- ① 갑은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절대 불행해질 수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은 절제의 덕이 필요 없다고 본다.
- ③ 을은 용기의 덕을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된 상태로 본다.
- ④ 을은 인간적 덕과 시민적 덕을 동시에 갖추 수는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도덕적 진리의 근원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본다.

3.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성인(聖人)은 그 은혜가 만대(萬代)에 미치는 경우에도 사람을 각별히 사랑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외부 사물을 그 자체에 맡겨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자는 성인이 아니다. 친소(親疏)를 구별하여 사랑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고, 이해(利害)를 따지는 자는 군자가 아니며, 명예를 좇아 참된 자아를 잃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

- ① 군주는 인정(人情)에 따라 상벌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 ② 성인은 시비(是非) 논변을 초월하고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
- ③ 군자는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인정(仁政)을 실시해야 한다.
- ④ 선비는 예법(禮)에 따라 인간의 자연적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 ⑤ 인자는 차별 없는 사랑(兼愛)으로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4.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言]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을: 무력을 바탕으로 인(仁)을 가장하는 것이 패도(霸道)이고, 덕을 바탕으로 인을 실천하는 것이 왕도(王道)이다. 통치자는 이익[利]의 추구보다는 인의(仁義)의 실현에 힘써야 한다.

(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범례〉

- : 출발 조건
-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Flowchart: A (Diamond) leads to B (Diamond) if '예' (Yes), and to C (Diamond) if '아니요' (No). B leads to '갑의 입장' (Square) if '예', and to C if '아니요'. C leads to '을의 입장' (Square) if '예'.

- ① A: 효(孝)를 모든 도덕 행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가?
- ② B: 인간은 선천적으로 양능(良能)을 지닌다고 주장하는가?
- ③ B: 정명(正名)에 입각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주장하는가?
- ④ C: 일정한 생업[恒産] 보장을 왕도(王道)의 시작으로 보는가?
- ⑤ C: 생산 활동을 통한 백성의 경제적 이익[利] 추구를 부정하는가?

5. 서양 사상가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유덕함은 영혼의 훌륭함을 말한다. 따라서 영혼의 훌륭함이 무엇인지 안다면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유덕함이 무엇인지 알면서 부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부덕한 행위는 무지로부터 나온다.

을: 유덕함과 부덕함의 구분은 어떤 행동에 대한 만족감과 비난의 소감에 근거한다. 시인(是認)의 대상은 유덕함이 되고, 부인(否認)의 대상은 부덕함이 된다. 이처럼 도덕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다.

- ① 도덕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승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 ② 도덕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에 근거하는가?
- ③ 공동체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데 도덕적인 행위가 요구되는가?
- ④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적 지식이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가?
- ⑤ 도덕적 덕과 악덕의 구별이 감각 경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물과 불은 생명이 없고, 초목은 생명이 있어도 지각(知覺)이 없으며, 짐승은 지각이 있어도 도의(道義)가 없다. 소는 인간보다 힘이 세고, 말은 인간보다 달리기를 잘하는데, 소나 말이 도리어 사람에게 쓰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들은 능히 모여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능히 모여 살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들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들은 도의가 없기 때문이다.

— < 보 기 > —

- ㄱ. 타인과 더불어 집단을 형성해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 ㄴ. 정신적 능력을 통해 윤리적 질서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 ㄷ.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초월자에게 귀의하는 존재이다.
- ㄹ. 스스로 창조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각자가 어떤 것을 지각하여 판단한 것이 각자에게는 참이 됩니다.

갑

아닙니다. 인간은 무지에 대한 자각과 선(善)에 대한 보편적 정의(定義)를 통해서 참된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을

— < 보 기 > —

- ㄱ. 갑은 도덕 판단의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ㄴ. 을은 누구도 악을 자발적으로 행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 ㄷ. 갑은 이성인, 을은 경험이 참된 삶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유덕한 삶과 행복한 삶은 별개의 것이라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국가는 그것을 구성하는 계층이 각기 자신이 맡은 바를 잘 행할 때 정의롭다. 개인이 정의로울 수 있는 것도 영혼을 구성하는 부분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이다.
을: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때 정당하다. 자유를 원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인간이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참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기 보존의 욕구 때문이다.

- ① 갑은 시민의 동의에 따라 통치자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개인의 이기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국가가 형성된다고 본다.
- ③ 갑은 도덕이 국가의 성립 이후에, 을은 이전에 존재한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국가가 필요악이므로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4.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 문제: 고대 불교 사상가 갑과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을 설명하시오.

갑: 고통을 끊으려면 탐욕을 떠나야 한다. 색(色)의 실상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밝지 못하여 탐욕을 떠나지 못하면 마음이 해탈하지 못한다.
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를 찾는 것이 최고이다. 내 마음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닫고, 깨친 뒤에도 오래 비추고 살펴야 한다.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

◎ 학생 답안

우주와 인생의 모든 현상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고 본 갑은 ㉠ 고통을 인간 세계의 현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았으며, ㉡ 애욕(愛慾)을 없애 열반의 상태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을은 ㉢ 우리가 본래 불성(佛性)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직관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참선보다는 경전 공부에 매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갑과 을은 모두 ㉤ 진리에 대한 무지, 곧 무명(無明)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공통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인간은 평화로운 자연상태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수립에 동의한다. 을: 인간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의사소통의 형식인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도덕적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나)	갑: ㉠. 그러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을: ㉡. 그러면 도덕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보편적 규범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정부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과 권리의 포기에 합의하라
- ② 개인들 간의 가상적 계약을 통해 정부의 수립에 합의하라
- ③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공적인 결정에 이견 없이 합의하라
- ④ 공론의 형성 과정을 방해하는 대화 참여자들의 배제에 합의하라
- ⑤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에서 합의하라